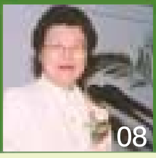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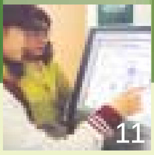
E W H A N E W S

이화소식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박통희 |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2005년 4월 1일 제 69호

02 03 07 08 11 16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신문방송 및 광고홍보분야 1위, 생물 및 생명공학 분야 2위

본교,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에서 1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월21일 발표한 2004년도 대학종합평가에서 본교가 평가 대상 40개 대학 중 1위를 차지, 이화 교육의 수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학문분야 평가에서도 신문방송 및 광고홍보분야가 전국 58개 대학 중 1위를, 생물 및 생명공학 분야가 전국 75개 대학 중 포항공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개가를 올렸다. 특히 생물 및 생명공학분야는 전국 70개 대학원 중 본교가 유일하게 95.0점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본교는 1995년 제1주기 평가에서 전국 종학대학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이번 제2주기 평가에서도 40개 대학 중 97.75점으로 1위를 기록, 최우수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일간지에 게재됐던 본교 평가 1위 광고〉

본교가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 ▲연구 및 산학협동 ▲교육 및 사회봉사 ▲학생 및 교수 직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등 주요 영역에서 골고루 '최우수' 점수를 받았기 때문.

이번 종합평가를 주관한 박통희 기획처장은 "교수들의 책임 강의 시수를 주 6시간으로 줄인 결과,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와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나란히 올라갔다"면서 "국제학술지 논문발표가 최근 3년간 연평균 20여%씩 늘어나고 있으며 강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강의 평가 점수도 5.0 만점에 평균 4.08을 기록할 정도로 수직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수전공, 부전공, 학·석사연계과정, 주제통합교과목 등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과정 제도의 선도적인 개발 운영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력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등을 통해 재학생의 평생 경력개발 지원체제를 갖춤에 따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좋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본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도 최근 3년간 종합대학 부문 1~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6면으로 기사 이어짐)

200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2월 28일 대강당) 열려

"변혁 꿈꾸고 대안 제시하는 창조적 지성인 되길"

학사 2800명, 석사 844명, 박사 84명 배출

200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사진)이 2월28일(월 ·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려 그동안 이화동산에서 미래를 준비해 온 이화인 3728명(학사 2800명, 석사 844명, 박사 84명)이 사회를 향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신인령 총장은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화인들에게 "용기란 결코 아무런 두려움없이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뜻을 위해 한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장벽에 직면할 때도 낙담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부딪치면서 '전심전력' 과 '성심성의' 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냉엄한 경쟁논리를 강요하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가 호혜와 공경의 윤리가 퇴색되고 경제 양극화와 계층 간의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화인은 단지 유능한 전문인이 되는데 그치지 말고 '변혁을 꿈꾸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식인', '보살핌과 섬김의 가치로 새로운 여성문화와 인류문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여성지도자' 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의 졸업생 대표는 자연과학부 생명과학전공 김미소씨가 선정됐다. 4.3만점에 4.24를 받은 김씨는 수석과 함께 6학기 만에 조기졸업하는 실력도 과시했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 구미영씨와 생활환경대학 의류직물학과 강민주씨는 2000학년도부터 본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5년제 학 · 석사연계과정을 마쳐 5년 만에 석사모를 쓰게 됐다. (인터뷰 · 하단)

한편 금혼학칙 폐지 후 2003년 2학기에 들어온 첫 재입학생 가운데 박경희(68 · 사학), 윤영주(56 · 불문)씨를 비롯, 40대와 30대 등 모두 4명이 숙원이었던 이화의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67년 입학생으로 40여년 만에 학사모를 쓰게 된 윤영주씨는 "컴퓨터 발표수업이 힘들긴 했지만 공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면서 "어린 친구들 눈에는 꿈도 미래도 없는 나이로 보이겠지만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도 진학해 미학 공부에 흠뻑 빠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학과 56학번인 박경희씨는 재작년 2학기에 재입학했으며, 입학 후 거의 반세기 만에 학사모를 쓰게 됐다. 〈효〉

조기졸업 3인방 인터뷰 "속성 졸업이어도 알맹이는 꽉 채웠지요"

김미소 씨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조기졸업자들의 활약상이 단연 화제가 됐다.

6학기만에 전체 수석으로 조기 졸업한 김미소(생명과학)씨. 4.3만점에 4.24라는 경이적인 학점을 기록한 그의 성적표에는 B+학점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A로 채워져 있다. 3년간 단 한번도 수업을 빼먹은 적이 없다는 그는 고득점의 비결로 "보고서 작성 때 인터넷보다는 도서관 뒤지기, 참고도서 많이 읽고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기"를 꼽았다.

고교과정(경기과학고)을 2년 만에 마친데 이어 대학과정을 6학기 만에 졸업, 5년 만에 고교와 대학과정을 모두 마치는 진기록도 세우게 된 김씨는 "공부 욕심이 많아 여러 과목을 들었더니 결과적으로 졸업 이수학점을 남들보다 빨리 채우게 된 것"이라고 겸손해하면서도 "앞으로 인간과 생명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다부진 꿈을 펼쳐 보였다.

구미영(생명과학), 강민주(의류직물)씨 역시 5년제 학 · 석사연계과정으로 남들보다 1년 먼저 석사모를 쓰게 된 경우. 지난 2000년 본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이후 처음 신청한 20여명의 학생 중 이 두 사람만이 첫 졸업의 영광을 안게 됐다.

구씨는 "매 학기 21학점씩 강의 듣느라 늘 시간이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았지만 과 친구들보다 1년 앞서 석사과정을 마치게 돼 스스로 기특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 통계학을 접목시킨 생물정보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간암관련 유전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유학 준비중인 강씨는 "남보다 1년 먼저 석사를 마치는 과정에서 얻는 것도 있는 반면 잃는 것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대학원 진학 계획을 가진 후배라면 학 · 석사연계과정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년제 학 · 석사연계과정은 현재 학부 4년, 석사 2년 등 6년 이상 걸리는 학위 취득기간을 학사 7학기, 석사 3학기로 단축시켜 5년만에 학 · 석사를 모두 마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최근에야 국내 대학들이 통합과정 설치를 시도하는 중이지만 본교는 이미 5년 전에 도입, 이번에 국내 최초로 학 · 석사연계과정의 첫 졸업자를 탄생시켰다.

강민주 씨(왼쪽)와 구미영 씨

이화학당 한옥교사(校舍) 복원 기공식

근대 여성사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재건

한국 여성교육의 발상지 이화학당(梨花學堂) 한옥 교사(校舍)의 복원 기공식(사진)이 29일(화 · 오전 11시) 본교 법대앞 신축부지에서 열렸다.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97.25평 규모의 한국 전통 건축물로 복원 신축될 이화학당은 본교가 창립 120주년을 맞는 2006년 5월에 완공된다.

지상 1층은 역사전시실과 이화학당 초기 모습을 재현한 숙소 및 교실 공간으로 꾸며지며, 지하 1층에는 항온항습기능을 갖춘 수장고와 행정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은 "이화학당 한옥 교사의 복원은 120년 이화 역사와 근대 여성사, 교육사에 대한 구심적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3세기에 걸친 근대 여성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꾸미겠다"고 밝혔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화학당 한옥교사는 구학에서 신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우리 전통문화와 서양문화가 만난 접점으로서 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이화학당이 완공되는 2006년은 한국 여성 교육이 시작된 지 2주갑(周甲)이 되는 해로 21세기에 이화가 또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학당 한옥 교사는 1885년 6월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여성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1886년 11월에 완공한 한옥 건물로 아펜셀러 목사(배재학당 설립자)에 의하면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집"이었으며 건평 2백 평에 건물 한가운데 마당이 있는 ㄷ자 형태의 큰 기와집이었다고 한다.

이화학당 복원 연구 작업은 본교 건축학과 윤재신 교수가 사진자료와 문헌, 그림을 토대로 진행했고, 설계는 금성종합건축사 사무소, 시공은 삼부토건주식회사가 맡았다. 〈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새내기의 설레임 웃음꽃도 활짝

신입생 대강당 습격사건. 200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월24일)에 참가한 새내기 이화인들의 웃음과 함성이 대강당을 뒤흔들었다. 이날 행사는 송덕수 학생처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영상동아리 'Cam Cool'의 영상선물 'Ewha Actually', 다함께 교가 배우기, 입학에서 졸업까지 필요한 대학생활 안내, 이향림 동문(PAG 그룹 사장, 수입차업계 첫 여성 CEO)의 '나, 이화인 글로벌 리더' 특강까지, 알찬 프로그램들로 이어졌다.

다음날인 25일 열린 입학식에서는 약학대학 박민영 신입생 대표를 포함한 총 3635명의 새내기들이 이화인이 되었음을 공식 선서하고 설레는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메리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에게 명예법학박사학위 수여

"아일랜드 발전의 비결은 여성과 교육"

노무현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던 메리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이 3월24일(오전10시30분 ·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본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인령 총장은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신장에 노력해 온 맥컬리스 대통령은 세계 여성들의 귀감이 된다"며 명예박사학위 수여 이유를 밝혔다.

2004년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속에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한 맥컬리스 대통령은 아일랜드의 두 번째 여성대통령.

유럽의 빈국이었던 아일랜드를 최고 부국 반열에 올려놓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현재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정치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 법학과 교수, 벨파스트 퀸스 대학 최초의 여성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분파주의 해소를 위한 교회 특별조사위원회' 공동의장, '벨파스트 여성자선기구' 회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 및 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완전한 평등과 조화를 향한 길은 아직 멀지만 아일랜드와 한국은 이제 한쪽이 아닌, 남성과 여성, 양쪽 날개로 날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이같은 변화는 바로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라며 본교가 지난 120년간 한국의 근대 여성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우리도 '사람입국'을 통해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키우고 있는 만큼 조만간 맥컬리스 대통령 같은 훌륭한 여성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청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2006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사항

●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 신설
● '미래과학자와 외국어 우수자' 증원
● 수시전형에 논술 도입

본교의 2006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사항이 발표됐다. 입학처(처장 박동숙 교수)는 총 3487명을 선발하는 2006학년도 입학 전형은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전형제도를 다각화, 각 전형 유형에 맞는 최적의 전형요소를 구체화해 학생들에게 진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시1학기모집에서는 일반 우수자 전형, 특별활동 우수자, 문학창작 특기자, 국제학 전문인 특별전형 및 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을 통해 입학정원의 10%인 총 351명을 선발한다. 수시2학기모집에서는 고교추천을 비롯한 총 8개 전형을 통해 1683명 이상을 선발한다. 지도력 및 특정분야의 역량이 뛰어난 실업계 고교 학생들을 선발하는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도 신설된다. 정시모집에는 일반전형과 함께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사회기여자와 소녀가장 등 3개의 특별전형이 치러진다.

다음은 2006학년도 전형의 주요내용.

●첫째, 교과외 특별활동에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나타낸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활동 우수자전형을 2학기에서 1학기 수시전형으로 시기를 바꾸어 실시한다.

●둘째, 수학 및 과학과 외국어 분야의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한 미래과학자와 외국어 우수자 전형은 인원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셋째, 고등학교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고자 하는 취지의 수시모집 1학기 일반 우수자 전형과 수시모집 2학기 성적 우수자 특별전형에 논술고사를 도입하여 우수학생의 사고력과 논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05년 학칙 이렇게 바뀝니다

인문과학대 인문과학부가 인문과학부와 기독교학부로 분리되고, 통역번역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이 신설되는 등 본교의 학부, 대학원 학제가 3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됐다. 기획처(처장 박통희 교수)가 발표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부

- ●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를 인문과학부와 기독교학부로 분리
- ○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를 수리물리과학부(수학 · 통계학 · 물리학 전공)와 분자생명과학부(화학 · 생명과학 · 분자생명과학 전공)로 분리하고, 분자생명과학 전공을 신설
- ● 체육과학대학 체육학부(체육학 · 사회체육학 전공)를 개편. 체육학과와 무용과를 두고, 사회체육학 전공은 폐지
- ○ 약학대학 약학부(약학 · 제약학 전공)를 약학과로 개편, 약학대학 제약학과는 폐지
  (이상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5조 관련 별표 1)
- ● 연계전공에 과학기술경영 전공(경영학사)을 신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50조 관련 별표 2)

대학원

- ●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에 박사학위 과정(문학박사, 공학박사) 신설
- ○ 대학원 체육학부를 학과제로 개편. 체육학과와 무용과를 두고 사회체육학 전공 폐지
  (이상 대학원 학칙 제3조,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별표 1)
- ● 통역번역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 통역번역학과 신설
  (대학원 학칙 제3조,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별표 2)

박승희 교수, 기획처부처장(평가)으로 임명

박승희 교수

박승희 교수(특수교육)가 3월1일자로 기획처 부처장(평가)으로 임명됐다. 박 교수는 앞으로 2년간 대교협의 학문분야별 평가 등 본교의 대학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Ewh@ro 제25호 발간

2006학년도 입시정보와 이화인들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담은 Ewh@ro 제25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세계국제무역기구(WTO) 법률국에 근무하는 정예경 동문, NASA 프로젝트 참여로 남극을 다녀온 박나희 동문 등이 소개됐으며 홍보도우미, 경력개발센터 등 본교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다. 본교 석학교수 1호인 나노과학부 최진호 교수의 이화 특강도 눈길. 그 외 본교의 다양한 전공제도 및 2006학년도 입학전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수험생들을 위한 실속 있는 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화로 오는 길, 여기 있습니다"

2006학년도 입학설명회 성황

2006학년도 입학전형 설명회가 3월26일(오후 2시) 대강당에서 마련됐다.

본교의 200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3000여 명의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2005학년도 1학기 신임교수 28명

이화의 선진교육 이끌 우수 교원 영입

황성주 교수

진연산 교수

주쌍전 교수

이준서 교수

김영규 교수

이성형 교수

한인택 교수

이주희 교수

최샛별 교수

이지연 교수

이용희 교수

김태희 교수

채현경 교수

신상근 교수

박경옥 교수

서정원 교수

이지환 교수

문영철 교수

조수진 교수

김수인 교수

소속		성명	최종출신학교	최종학위명
대학원	나노부	황성주	서울대, Univ. de Bordeaux Ⅰ(프)	이학박사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	진연산	북경대학(중)	문학박사
		주쌍전	복단대학(중)	문학박사
	독어독문학	이준서	베를린자유대(독)	Doktor der Phil.
	한국학	김영규	Univ. of Hawaii at Manoa	Ph.D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이성형	서울대	정치학박사
		한인택	Univ. of Califonia, Berkeley	Ph.D
	사회학	이주희	Univ. of Wasconsin-Madison	Ph.D
		최샛별	Yale Univ.	Ph.D
	심리학	이지연	이화여대	문학박사
자연과학대학	통계학	이용희	Univ. of Wasconsin-Madison	Ph.D
	물리학	김태희	Louis Pasteur Univ. (프)	Ph.D
음악대학	작곡	채현경	Univ. of Michigan	Ph.D
사범대학	영어교육	신상근	U.C.L.A.	Ph.D
	보건교육	박경옥	Univ. of Georgia	Ph.D
경영대학	경영학	서정원	Univ. of Michigan	Ph.D
		이지환	London Business School(영)	Ph.D
의과대학	의학(내과학)	문영철	영남대	의학박사
	의학(소아과학)	조수진	이화여대	의학박사
	의학(신경정신과학)	김수인	이화여대	의학박사
	의학(비뇨기과학)	변영준	연세대	의학박사
	의학(진단방사선과학)	은효원	이화여대	의학박사
	의학(신경과학)	정지향	이화여대	의학박사
	의학(산부인과학)	주 웅	서울대	의학박사
	의학(성형외과학)	변재경	서울대	의학박사
간호과학대학	간호과학	양숙자	이화여대	간호학박사
약학대학	약학	권영주	Univ. of Houston	Ph.D
교무처	교양영어실	John M. Iacolucci	Carleton Univ.(캐)	M.A.

변영준 교수

은효원 교수

정지향 교수

주웅 교수

변재경 교수

양숙자 교수

권영주 교수

John M.Iacolucci 교수

2005학년도 1학기 승진 교원

교무처(처장 성태제 교수)는 2005학년도 1학기 승진교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학기 평균 승진율은 62.4%이다.

교수 이경림(분생부), 이미정(컴퓨터학), 함동주(사학), 권은미(불어불문학), 한민주(불어불문학), 최준식(한국학), 함인희(사회학), 양윤(심리학), 김훈순(언홍영), 최원자(생명과학), 강애란(회화 · 판화), 김혜연(복식디자인), 차임선(섬유예술), 정재삼(교육공학), 우애자(과학교육), 박경희(경영학), 이선희(의학), 이미애(의학), 정구영(의학)

부교수 강상원(분생부), 박현석(컴퓨터학), 이승준(정보통신학), 강미선(건축학), 염혜희(통역학), 강태경(영어영문학), 홍기석(경제학), 정순돌(사회복지학), 박신화(성악), 최유미(시각정보디자인), 엄정애(유아교육), 이종경(사회생활학), 한인식(과학교육), 정현미(법학), 김상일(법학), 김용재(의학), 최병옥(의학), 강병철(의학)

조교수 김정태(정보통신학), 박혜경(통역학), 오은진(영어영문학), 원숙연(행정학), 강민아(행정학), 계명선(건반악기), 정혜영(초등교육), 이은주(영어교육), 서을오(법학), 최희경(법학), 변진호(경영학)

2005학년도 1학기 우수 교원

강의우수 교수 고수영(분생부), 김미현(국어국문학), 박신화(성악), 김인호(법학), 김은갑(경영학)

연구비우수 교수 이공주(분생부), 권종범(분생부), 최진호(나노부), 남원우(나노부), 김성진(나노부), 김명희(컴퓨터학), 박석순(환경학), 김현숙(국어국문학), 이재돈(중어중문학), 김민정(영어영문학), 김혜숙(철학), 함동주(사학), 최소자(사학), 홍선표(미술사학), 이영애(심리학), 이혜숙(수학), 박일홍(물리학), 조재경(산업디자인), 최경실(환경디자인), 심현섭(특수교육), 신경식(경영학), 김대기(약학)

강의우수 시간강사 김미란(컴퓨터학), 박영란(교양영어실)

2005학년도 1학기 연구년 개시 교원

1년 연구년 박경미(기독교학), 장한업(불어불문학), 최민숙(독어독문학), 강태경(영어영문학), 강원(물리학), 안미자(건반악기), 정재삼(교육공학), 정영해(의학), 정익모(의학), 김혜순(의학), 유정현(의학), 강병철(의학), 이인성(의류직물학), 김광옥(식품영양학)

1년(분할) 연구년 함동주(사학), 함인희(사회학), 양종만(물리학), 이여진(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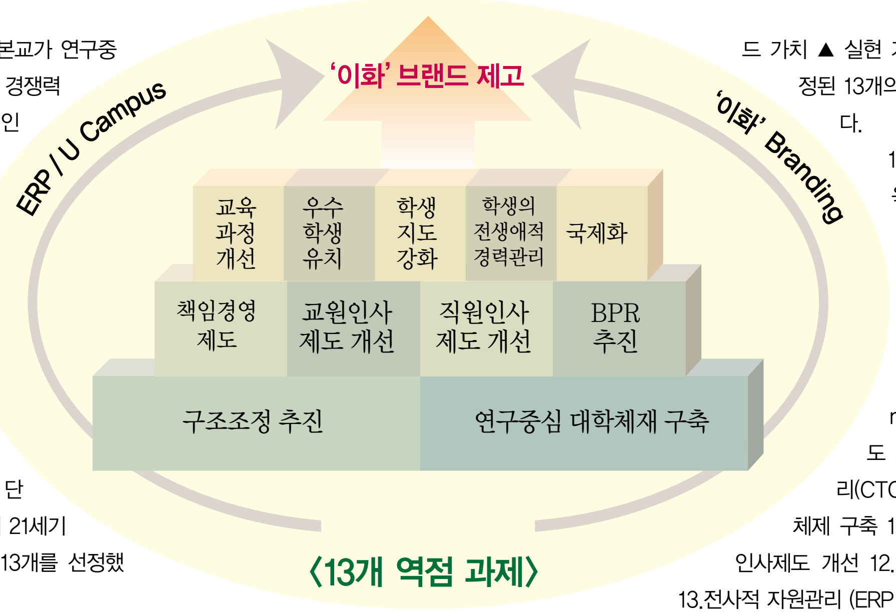
수업경감 연구년 강순자(과학교육)

반년 연구년 이병욱(정보통신학), 김현숙(국어국문학), 이재돈(중어중문학), 조용승(수학), 최승현(건반악기), 김명숙(무용), 최금숙(법학), 김경민(경영학), 이화영(의학), 문숙재(소비자인간발달)

'21세기 이화발전계획' 역점과제 선정

이화인을 위한 '전생애적 경력관리 체제' 구축 등 13개

급변하는 교육 환경속에서 본교가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입지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총체적인 '이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



본교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획처(처장 박통희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이화의 발전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재점검, 이를 해당 부처 및 이화발전기획팀과의 워크숍 등 단계적 작업을 거쳐 최근 이화의 21세기 비전 달성을 위한 역점 과제 13개를 선정했다.

박통희 기획처장은 "2주기 대학종합평가를 위한 자체 평가 과정은 이화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는 좋은 계기였다"면서 "취업률 공시, 남녀공학대학의 여학생 비율 급증 등 우리를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속에서 이화만이 가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발전 계획의 로드맵을 그리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총 127개의 실행과제중 ▲ 거교적 추진의 필요성 ▲소관 처의 과제 우선순위 ▲ 파급효과의 크기 ▲ '이화' 브랜드 가치 ▲ 실현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 선정된 13개의 역점 과제는 다음과 같다.

1.교원인사제도 개선 2.교육과정 개선 3.구조조정 추진 4.책임경영제도 5.국제화 6.이화 브랜딩 7.업무 절차 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추진 8.학생지도 강화 9.전생애적 경력관리(CTC · Career Total Care) 체제 구축 10.우수학생 유치 11.직원인사제도 개선 12.연구중심대학 체제 구축 13.전사적 자원관리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및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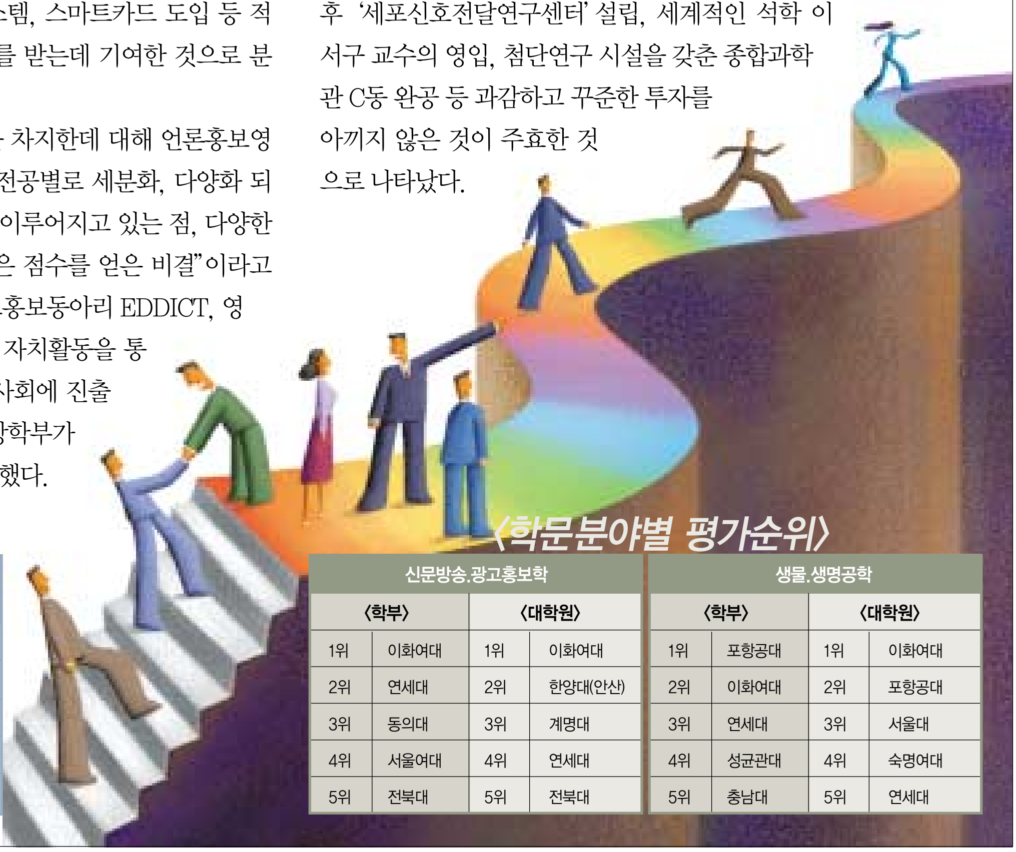
기획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역점 과제의 내용을 이화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한편, 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제안도 받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1면에서 기사 이어짐)

이외에도 이화캠퍼스센터(ECC)를 비롯해 10여건의 건물 신축을 통해 첨단 캠퍼스 환경을 조성중이며 장학금 제도를 대폭 개편, 수혜 대상을 확대했고, 이화포탈정보시스템, 스마트카드 도입 등 적극적인 정보화 추진 실적도 높은 점수를 받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교 언론홍보영상학부가 전국 1위를 차지한데 대해 언론홍보영상학부장 유세경 교수는 "커리큘럼이 전공별로 세분화, 다양화 되어 있고, 이론과 실습 교육이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다양한 전공영역을 가진 우수 교수진 등이 좋은 점수를 얻은 비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웹진 DEW, 이화TV, 광고홍보동아리 EDDICT, 영상동아리 캠쿨 등 학생들이 전공 관련 자치활동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충분히 닦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도 본교 언론홍보영상학부가 전국 최고로 평가받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포항공대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한 생명공학분야의 경우 본교가 97년 생명과학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한 이후 '세포신호전달연구센터' 설립, 세계적인 석학 이서구 교수의 영입, 첨단연구 시설을 갖춘 종합과학관 C동 완공 등 과감하고 꾸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순위〉

40개 대학 학부 종합평가 결과	
1위	이화여대
2위	한양대(서울)
3위	한양대(안산)
4위	인하대
5위	서울여대

40개 대학 대학원 종합평가 결과	
1위	이화여대
2위	한양대
3위	서강대
4위	서울여대
5위	인제대

〈학문분야별 평가순위〉

신문방송.광고홍보학			
〈학부〉		〈대학원〉	
1위	이화여대	1위	이화여대
2위	연세대	2위	한양대(안산)
3위	동의대	3위	계명대
4위	서울여대	4위	연세대
5위	전북대	5위	전북대

생물.생명공학			
〈학부〉		〈대학원〉	
1위	포항공대	1위	이화여대
2위	이화여대	2위	포항공대
3위	연세대	3위	서울대
4위	성균관대	4위	숙명여대
5위	충남대	5위	연세대

쌈지돈 모아 제자 사랑의 장학금

나노과학부 교수진, '여성나노과학자 육성장학금' 2억5120만원 조성

"경제 사정 때문에 우수한 제자들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제자들의 미래를 여는 기폭제가 됐으면 합니다."

본교 나노과학부 교수 20여명이 주머니를 털어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 2억5120만원을 마련했다. 나노과학부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석·박사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왼쪽부터) 윤주영, 황성주, 윤여준, 김성진, 조월렴, 최진호, 박성수, 손연수, 김연상, 김진흥, 최병옥, 김태희, 윤석현 교수

나노과학부 교수진은 현재 모인 장학기금을 종자돈 삼아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적립, 4~5년 내에 20억원 규모의 '여성나노과학자 육성장학금'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다.

나노과학부 최진호 교수는 "시절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공계 여학생들이 석·박사과정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아 마음껏 공부하기 어렵다"면서 "정말 뛰어난 제자인데 학자금이 없어 나노과학인의 길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십시일반으로 장학금을 모으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기금은 최진호 교수가 한 독지가(클린에어텍(주) 경영고문 황희철씨)로부터 장학금 2억원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나노과학부 교수진들이 자진해서 장학금 기탁 의사를 밝혀와 성사됐다. '여성나노과학자 육성장학금'은 내년부터 나노과학부 대학원 학생들에게 지급되며 매년 수혜대상자를 늘려갈 예정이다. 김성진 교수(대학원 나노과학부장)는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계속 기금을 늘려나가겠다"면서 "이 장학금이 기반이 돼서 제자들이 경쟁력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커 갔으면 한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본교 나노과학부는 2002년에 신설되어 현재 대학원생 70명, 박사후 연구원 30명, 교수 2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석학 최진호 교수를 본교 석학교수 1호로 초빙한 것을 비롯, 국내 최고의 교수진과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국내 나노과학분야에서 최고의 연구 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효〉

이화人 이화in

"들리지 않아도 알아요. 세상엔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 많다는 걸…"

–청각장애 딛고 특별장학생으로 입학한 05학번 이화영씨

교정에 선 이화영 씨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입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 신입생 이화영씨(20). 그의 꿈은 자신처럼 청각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청력을 상실해 장애가 제일 심한 2급 판정을 받았지만 남을 돕겠다는 소신만큼은 누구보다 강하다.

"진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했어요. 사실 컴퓨터 분야도 생각했었죠. 모니터로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서 채팅을 자주 하다보니 컴퓨터가 익숙해지더라구요.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뭔가를 더 하고 싶었어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고교(광영여고)를 다닌 이씨는 남들 두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공부에 쏟아부어야 했다. 친구들 사이에선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꼼꼼한 노트 정리로 부러움을 샀지만, 그 때문에 중지가 휘어질 정도였다고. 평소에는 모범생의 철칙인 예·복습을 철저히 했고, 입 모양을 놓친 선생님 설명은 친구 노트를 보며 챙겼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영어. 발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제 스스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판타지 소설을 많이 읽었죠. 힘든 현실을 도피하고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해피엔딩에서 희망을 찾기도 했죠. 지금도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합격의 기쁨은 마음을 나눠주고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친구들 덕분이라며 환하게 웃는 이화영 씨의 우상은 바로 고3때 담임선생님.

"당당하고, 말도 잘하고, 예쁘고, 똑똑한 선생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요(웃음). 합격 소식 듣고 누구보다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젠 제자에서 대학 후배가 되었거든요."

정시모집 면접 때 전공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이씨. 예의 그 성실함으로 신입생 생활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수화를 배우려고요. 예전부터 조금 알긴 했는데 동아리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운전면허도 따야죠."

장애를 극복한 20살 홀로서기, 그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민〉

정년퇴임으로 47년만에 이화 떠나는 장상 교수

"꿈꾸는 데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이화와 진한 열애에 빠졌던 기분입니다."

본교 11대 총장을 지낸 장상 교수(기독교학)가 3월10일(목·오후 2시) 대학교회에서 정년퇴임 감사예배를 갖고 본교를 "58학번으로 입학한지 47년만에 졸업"했다. 28년 만에 정든 교단을 떠나는 장 교수는 "가르치는 일이 신나고 즐거워서 이를 업으로 삼게 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며, 선생 노릇을 그만두게 돼 아쉽긴 해도 "학자로서 새롭게 공부하고 글쓰고 의견을 밝히는 일을 계속할 생각에 설렘이 교차한다"고 퇴임 소감을 전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온통 감사할 일 뿐이라며 정년 퇴임식을 감사예배로 대신한 그는 "헤어짐이 아쉬워도 졸업 후에 그 사랑은 더욱 성숙해지는 법"이라며 이화에서의 아름다운 만남들을 가슴에 품고 간다고 했다.

1977년부터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임해온 장 교수는 바울신학과 여성신학을 연구하는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자로 유명하다. 1996년 본교 총장으로 취임, 탁월한 리더십으로 21세기 이화대학의 특성화·정보화·세계화에 앞장섰고 2002년에는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서리를 지냈다.

총장 시절 그는 '꿈을 파는 전도사'로 통했다. 'Upgrade your dream, Create tomorrow'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세계 속의 이화'라는 꿈을 팔았다. 2003년에 발행한 자서전 제목이 '나는 지금도 꿈을 꾼다'일 정도.

"자서전을 냈더니 지인들이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꿈을 꾸느냐'고 반문하더군요. 그래서 '내 나이 되면 알게 될 거라'고 대답했죠. 꿈에는 정년도 커트라인도 없는데 왜 나이 들면 꿈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순 다섯이란 나이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를 벗어나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때인데 말이죠."

장 교수는 퇴임을 맞아 본교에 약정한 5000만원의 장학금을 완납하고, 개인 소유의 4만평 토지를 한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했다. 퇴임기념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여성' '성서·여성·신학' '지구화시대의 신학과 대학교육' 등 세 권의 책도 내놓았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와 박영식 광운대 총장을 비롯 600여명의 동료와 지인들이 참석했다. 장교수는 이날 정부로부터 1등급 훈장인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퇴임교수 프로필

당신의 헌신이 오늘의 이화를 만들었습니다

2005년 2월 28일자로 장상 교수 등 10명의 교수가 정년퇴임으로, 이택수 교수가 명예퇴임으로 이화를 떠났다. 이화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퇴임교수들의 프로필을 소개한다.

김한중 교수(의학)

1978년 3월 본교에 부임, 26년간 의대 성형외과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성형외과학교실 설립 등 우수한 성형외과 전문인력 양성과 성형외과학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재건 성형 및 미용성형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중 미세혈관술과 피판술에 관한 논문들은 성형외과학 교과서에 널리 인용되고 있다.

의사로서의 품성과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 교수는 1982년부터 9회에 걸친 국내 언청이 수술 의료봉사 활동과 1995년, 96년 베트남 언청이 수술 봉사활동으로 500여명의 구순열 환자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는 삶을 제시했다. 섬세함을 요구하는 성형외과 분야에서 뛰어난 여성 의료진을 다수 배출하여 여성 의사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대한성형외과학회 상임이사와 회장을 역임, 성형외과학교실의 위상을 드높였다.

배천범 교수(복식디자인)

1984년 3월부터 조형예술대학 복식디자인 전공에 20여년을 재직하면서 패션디자이너 양성과 패션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에 패션디자인을 미술에 접목시키는 선진기법을 시도한 최초의 교육자로서 88올림픽 전야제 등 수많은 패션행사의 기획, 심사, 아트 디렉팅을 담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패션문화협회를 창립, 1, 2대 회장을 역임하고 88서울올림픽, 부산아시안게임, 대전엑스포 등 국가행사의 조직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 그 공로로 1994년 대통령 철탑산업훈장, 2002년 동일방직 패션산업 진흥상을 수상했다.

끊임없는 실험정신과 열정으로 교육에 헌신하여 수많은 디자이너와 교육자를 양성했으며, 색채디자인연구소와 패션디자인연구소 소장을 지내면서 본교 패션디자인 교육의 명성과 지평을 넓히는데 열정을 쏟았다.

어수영 교수(정치외교)

1983년 3월부터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면서 비교정치와 일본학 및 선거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이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고, 이중 '현대일본정치론'(1986년 출판)으로 한국출판협회의 '오늘의 저서상'을 수상했다.

1991년부터 7년간 국제교육원장을 맡아 본교의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 마련과 해외 교환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했으며, 사회과학대학 학장, 정책과학대학원장, 국제통상협력연구소장 시절에는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 본교의 사회과학 분야 교육 및 연구환경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국선거학회 회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요 임원 등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학계 발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 현실정치 속에서 능력 있는 여성 사회과학도 양성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우행원 교수(의학)

1970년 7월부터 의대 정신과학 교실 교수 및 동대문 병원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기초 정신의학, 여성 정신의학, 노인정신의학 분야에서 탁월하고도 창의적인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우 교수가 집필한 '의료행동과학', '정신과학' 등의 의학 교과서는 최근까지도 의과대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할 필독서중의 하나로 꼽힌다.

1997년에는 정신과 학회의 학술용어 및 진단명 제정위원장을 맡아 정신과 의학용어 통일작업을 주도했고, 여성 정신과 의사로는 최초로 대한 정신의학회 부회장을 맡아 학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본교 출신 첫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한 우 교수는 동대문 병원의 교육연구부장, 신경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을 지내며 초창기 동대문병원 정신과교실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가 남다른 열정으로 키워낸 본교 출신 정신과 전문의들은 현재 한국 여성 정신과 분야의 큰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택수 교수(경영)

1984년 3월부터 21년간 경영대학 경영학과에 재직하면서 공인회계사 및 경영학도의 양성과 한국회계학계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연결재무제표 및 환경회계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 업적을 남겼다. 한국산업경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통해 회계학 연구의 토양 마련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진출에 제약이 많았던 한국의 경영 풍토 속에서 재무회계와 재무재표분석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회계학 교육방법을 개발, 제자들이 경영자 및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오랜 기간동안 공인회계사반 지도교수를 맡아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많은 후학들을 공인회계사로 키워냈으며, 경영대 초창기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학과장을 역임, 경영대학 발전과 경영학과 기반을 닦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김초강 교수(보건교육)

1975년 9월 사범대학 보건교육과에 부임, 학과장을 10년 이상 역임하면서 남다른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학과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보건교육 및 모자보건 분야에서 창의적인 논문 및 저서를 다수 발표했으며, 특히 국내 최초로 집필한 '모자보건학' 교재는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까지 학생들의 귀중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 한국보건교육 · 건강증진학회 첫 여성 회장을 지내면서 학회지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시키는데 성공했고, 본교 평생교육원 교학과장 재임 당시 교육부로부터 사회교육시설 인가 1호를 받아내는 등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했다.

'한우리집'의 초대 관장으로서 기숙사를 숙식의 장뿐만 아니라 문화의 장으로 변모시켜 최첨단 기숙환경 조성에 일조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활발한 강연 활동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홍영숙 교수(의학)

1971년 3월 이후, 34년을 의학과 생화학교실에 재직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다루게 될 미래의 의사 및 의학자 양성에 헌신했고 화학적 발암 기전의 규명 및 암의 화학적 예방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았다.

1970년대 화학적 발암기전이 알려지기 시작한 초기부터 발암물질의 활성에 주요한 대사효소인 시토크롬 P450(cytochrome P450)을 연구,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했다. 80년대 이후에는 첨단 생명공학기술(BT)인 단일항체 기법, 유전공학 기법을 국내 최초로 소개함으로써 국내 생화학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및 암 연구의 비전을 제시했다. 1995년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첫 여성 회장을 역임하면서 국제 규격의 학회로 재탄생시켰으며, 국내 최고의 인용도를 자랑하는 SCI 잡지 EMM(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탄생의 초석도 마련했다.

에델트루트 김 교수(독문)

1980년 3월 부임, 24년간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에 재직하면서 원어민 교수로서 독일어 문학 교육 및 한독 문화교류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독일어 교과서를 스스로 집필하고 문헌 자료 및 시청각 자료를 직접 제작하는 등 한국 교육 실정에 맞는 외국어 교수법을 개발했고, 수많은 사례연구 결과를 국내외 학회에 논문 발표, 후속 외국인 교수들에게 학문적 자극을 주었다.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과 독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대학간 협정 등 국제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여 본교의 독어독문학과를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학과로 성장시켰다. 2003년 본교 동문인 김선희 씨와 공동 번역한 'Vogel'(원작 오정희 씨의 '새')로 대산문학상 번역상을 수상하는 등 두 나라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장혜원 교수(건반악기)

1968년 9월부터 음악대학 건반악기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논문과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음악대학 발전과 후진 양성에 기여했다. 국내와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각지에서 수백회에 걸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피아노독주회, 합주, 레코딩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벌였으며, 한국음악학회 회장, 한국피아노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국내 음악계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한국 음악상, 한국 음악평론가협회상, 한국 예술평론가협의회 최우수 예술인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피아노과장, 음악대학장, 음악연구소장을 맡아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 본교 음악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음악전문 공연장 '이원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우리 음악계 발전에 이바지했다.

Sonia Strawn 교수(교양영어실)

1996년 3월부터 9년간 본교 교양영어실에 재직하며 이화의 영어교육에 힘써오다 2005년 2월 정년퇴직했다.

돌아온 남성교수 중창단 '백설공주와 오빠들'

이화에 좋은 일이 있으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2월25일, 입학식이 열린 대강당. 7명의 남자교수(사진)들이 축하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멋진 하모니에 실려 시작된 이들의 노래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자자자 짜장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지구는 작은세계 우주를 지켜라. 씩씩하게 잘도 싸운다. 짱가, 짱가 우리들의 짜앙가…."

객석을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메우게 한 이들은 본교의 남성교수 중창단인 '백설공주와 오빠들'. 97년 1월, 본교 교수 남녀성가대 연습 도중 '남자들만 한번 따로 불러보자'며 결성된 이래 교내 주요행사에는 빠짐없이 나타나는 이화 명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2003년 12월, 채플 보충시간에 동문가수 노영심씨와 함께 특별 무대를 가진 이후, 지난해에는 연구년을 맞은 멤버들이 많아 거의 개점 휴업상태였다고.

"학교 행사라면 어디든 달려가려고 합니다. 입학식, 채플은 물론 고교생 대상 입시설명회 등에도 함께 해 음악과 노래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총무인 황규호 교수(교육)의 설명이다. 다시 뭉친 멤버들은 박승수(공대, 단장), 김동근(교목실), 박신화(음대), 이종목(조형대), 장동훈(조형대), 조덕현(조형대), 진승권(사회대), 채기준(공대), 홍종필(사회대) 교수 등 다양한 전공을 자랑한다.

전부 아마추어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모두 수준급. 김동근 교수는 독창회를 연 적도 있고, 박승수 교수는 대학 보컬 출신이다. '빼어나다'는 평을 듣는 이들의 화음에 즐겨 실리는 곡들은 '할렐루야 투더 세인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성가곡과 '오 해피데이' '마법의 성' '사랑으로' 등 가요와 팝송 50여곡.

피아노 반주자는 본교 음대생 중에서 '모셔오는데' 현재는 장시온(대학원 음악학과)씨가 '백설공주'로 수고해 주고 있다.

이들의 소망은 언젠가 이화합창단의 해외 공연에 동행해 한국 남성의 중후한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 학교 홈페이지(http://home.ewha.ac.kr/~obbas)에도 이들의 노래 녹음 자료 및 사진자료가 실려있다. 〈덕〉

동정

윤난지 교수(미술사학)

회장으로 있는 서양미술사학회가 4월30일(오전10시) 이화 · 삼성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동아시아 미술과 서양미술사'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마련한다. 홍콩대 완칭리 교수, 동경대 요시미 순야 교수, 서울대 김영나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동아시아 미술에서 서양미술사가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재생산되는 양상을 논의한다.

최민숙 교수(독문)

지난해까지 회장으로 있던 한국괴테학회를 대표해 1월24일, 독일 바이마르의 안나 아말리아 공작부인 도서관 관장 미하엘 크노헤 박사에게 기부금 2500 유로를 전달했다. 국내 학회가 외국의 도서관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 돈은 2004년 9월의 화재로 유실된 이 도서관의 장서 복구를 위해 쓰이게 된다.

백의헌 교수(작곡)

2월28일 본교 음악대학 327호에서 열린 2005년도 新음악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성이 교수(사회복지학)

2월18일 열린 전국사회복지사협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조기숙 교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

"정부와 언론의 건강한 협력관계 위해 최선"

조기숙 교수

조기숙 교수(국제대학원)가 2월17일,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은 물론, 정치학자로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대한 조언도 담당하겠다"고 밝힌 조 교수는 여성 정치학자로는 드물게 현실정치에 대한 소신을 거침없이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본교 정치외교학과, 미 인디애나대학을 나온 조 교수는 97년부터 본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재학시절 법정대 학생회장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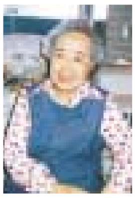
김갑순 전 본교 교수 별세

국내에 영어연극을 도입한 1세대 영문학자이자 여성운동가였던 김갑순 전 본교 교수가 3월6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앨라배마 주립대, 스탠포드대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고인은 한국전쟁 당시 본교 부산 천막교사에서 아기를 업고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본교 문리대 학장을 지냈으며 1982~85년에는 대한YWCA 회장으로 여성운동에서 앞장섰다.

사회에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70년)과 YWCA 75주년 50년 봉사상 등도 받은 바 있다.

김메리 전 본교 교수 별세



이화여전 음악과 교수로 재직시 동요 '학교종이 땡땡땡'을 작사 · 작곡한 김메리 여사가 2월9일 101세를 일기로 미국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화여전을 졸업한 후 미시간 대학에서 음악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김메리 여사는 47년 다시 미국에 돌아간 후 49세때 미국 웨인 대학에서 생화학과 미생물학을 공부해 77년까지 의학 연구원으로 활약하는 등 끊임없는 열정으로 자신의 노래와 함께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미국내 4곳에 한인 교회를 설립한 공로로 1980년 본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증축 공사 끝내고 재개관하는 박물관

국내 대학박물관의 대표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박물관(관장 윤난지 교수)이 1년6개월여의 충전기를 거쳐 5월31일의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

2003년 9월부터 증축공사를 시작해 총 400평 규모로 확장된 박물관은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등 4개의 전시공간과 전문도서관을 갖추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대학박물관으로의 면모를 강화했다.

기존의 이화조각공원자리에 담인복식미술관, 기증품전시실, 도편자료실, 전문도서관, 소규모 수장고를 배치, 전시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재편성한 것도 눈길.

창립 70주년을 맞는 올해, 뜻깊은 재개관을 맞게 된 박물관은 기념 전시 행사로 '한국도자의 새로운 시선', '시간을 넘어선 울림 : 전통과 현대', '지역사회의 뜻과 정성'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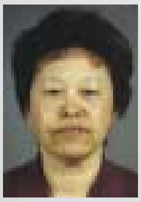
전문 도서관은 1만5000 여권의 미술사, 고고학, 박물관학 관련 장서, 도록, 보고서,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공자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한다.

이화에 사랑을 남기고 갑니다

정년 · 명예 퇴직 직원 7명

윤연자 씨

윤점중 씨


허순례 씨

김상기 씨

김표한 씨

이성창 씨

장일경 씨

회계과, 후생복지과 등에서 28년 가까이 근무해 온 회계과 윤연자 주임 등 5명이 정년퇴직으로, 시설과 이성창 과장과 도서관 장일경 준사서가 명예퇴직으로 정든 이화를 떠났다(2월28일자). 이들을 위한 환송예배는 2월18일 이화 · 포스코관 B153호에서 열렸다.

구분	소속	성명	직위	근무내역
정년퇴직	회계과	윤연자	사무직원 (주임)	총무과,관재과,후생복지과,회계과 27년 11개월 근속
	후생복지과	윤점중	기능직	후생복지과 16년 4개월 근속
	후생복지과	허순례	기능직	후생복지과 17년 근속
	시설과	김상기	기능직	시설과 28년 근속
	시설과	김표한	기능직	시설과 15년 10개월 근속
명예퇴직	시설과	이성창	사무직원 (과장)	시설과 24년 5개월 근속
	중앙도서관	장일경	준사서	중앙도서관 20년 7개월 근속

2005년도 직원교육 대상자 선정

전문성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직원 교육의 대상자가 발표됐다. 총무처(처장 양혜순 교수) 인사과는 본교 e-비즈니스 여성 사이버 아카데미의 Action e-MBA과정에 이금숙(법대), 유일선(경영대), 이한나(대협), 강지영(자연사박물관), 한미라(이화리더십개발원)씨가, 이화리더십개발원의 제4기 기업여성리더십개발과정에는 이승연(회계과), 신효숙(입학과)씨가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EWHA in Photo

중앙도서관 봄맞이 대변신

새 봄, 중앙도서관이 산뜻하게 변신했다. 대출실, 노트북실, 5층 자료실, 자유열람실, 화장실까지 리모델링, 실내 분위기가 깔끔해졌다. 또한 1층과 5층에는 좌석배정기(원터치 스크린)를 이용한 '좌석관리시스템'을 도입, 사석화 방지는 물론 층별 좌석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IT One-Stop Service Center 오픈

3월2일 동창회관 1층에 마련된 IT One-Stop Service Center에서 사이버 세상으로 빠져든 학생들. 노트북, 공용 소프트웨어, 무선랜 카드 등을 대여하고, 네트워크 및 PC관련 서비스와 IT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전화 3277-4777~80)

차세대 식품 개발, one-stop으로 도와드립니다

바이오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단장 김미경 교수)이 3월25일(오후 2시 · 이화-삼성교육문화관 대강당) 개소식(사진)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본교에 둥지를 튼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은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서울지역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서울 바이오식품산업 혁신기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앞으로 3년간 수행하게 된다.

본 사업에는 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본교를 비롯해 연세대, 단국대, 대상(주), (주)랩프런티어, 한국식품연구원,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삼성서울병원 등 8개 기관이 참가하며 우선 1차년도인 올 6월까지는 18억6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본교에서는 김미경 교수(식영)가 총괄사업단장으로, 김양하 교수(식영)가 세부과제 책임자로 사업을 주도한다.

2004년 9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김미경 단장은 "산 · 학 · 연의 네트워킹 체제 구축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One-Stop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식품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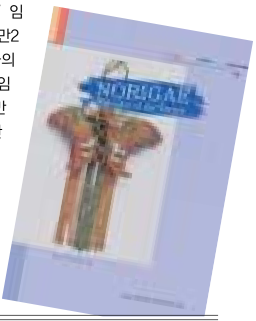
홈페이지 : www.biofood.or.kr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우리 문화의 근원을 탐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의 1차분이 출간되었다. 신형식 상명대 초빙교수(전 본교 교수)의 ‘한국사 입문’, 이경자 전 본교 교수가 집필한 ‘전통 한복의 멋 · 노리개’, 임석재 본교 교수의 ‘한국의 지붕 · 선’, ‘한국의 창 · 문’, ‘한국의 돌 · 담 · 길’, ‘한국의 전통 공간’, ‘한국의 꽃살 · 기둥 · 누각’, ‘Norigae: splendor of the Korean Costume’(‘노리개’ 영문판) 등 총 8권이다.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유물의 원색사진과 실측도를 실은 ‘전통 한복의 멋 · 노리개’의 시각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며, 전통 건축 관련 5권의 책도 필자가 직접 찍은 사진 자료들을 수록하고, 동양 사상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기술함으로써 ‘한국 전통 건축’ 분야를 완결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2009년까지 총 50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는 문학, 사상, 음악, 미술, 공예, 가구, 음식, 의복, 건축, 놀이 등 한국의 전통 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더 나아가 각 분야의 요소들을 하나의 주제로 하여 세부적으로 천착해 들어감으로써, 일반인들이 우리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전문성을 띠는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작은 판형과 풍부한 시각적 자료들을 위주로 한 구성으로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시리즈는 전통 문화의 세계화에 일조한다는 기획 취지에 따라 영문판으로도 출간되며, 2005년 상반기에 출간이 예정돼 있는 국문판 10종과 영문판 10종은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출품할 계획이다.



1. 한국사 입문 / 신형식 지음 (만1천원) **2.** 전통 한복의 멋 · 노리개 / 이경자 지음 (만2천원) **3.** 한국의 지붕 · 선 / 임석재 지음 (만2천원) **4.** 한국의 창 · 문 / 임석재 지음 (만2천원) **5.** 한국의 돌 · 담 · 길 / 임석재 지음 (만2천원) **6.** 한국의 전통 공간 / 임석재 지음 (만2천원) **7.** 한국의 꽃살 · 기둥 · 누각 / 임석재 지음 (만2천원) **8.** Norigae : Splendor of the Korean Costume / by Lee Kyung Ja (U.S.$ 15.00)

러브레터의 유혹 | 사랑의 글모음 / 영국편

이희원 · 최경희 편역

사랑의 분신, 러브레터 | 사랑의 글모음 / 미국편

박정오 · 홍유미 편역

‘사랑의 글모음’ 시리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책으로, 영국과 미국의 대문호들이 그들의 연인과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들을 모았다. 각각의 편지들의 맥락과 정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가에 대한 설명과 편지의 배경 설명도 곁들였다.

영국편은 16세기의 헨리 8세부터 20세기의 D. H. 로렌스까지 연애편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연도순으로 묶었다. 헨리 8세, 조지 엘리어트, 존 키츠,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버나드 쇼의 편지들이 실려 있다.

미국편은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미국 문학의 주요 작가들을 중심으로 엮었다. 시기적으로 현대에 가깝고, 활달하고 자유분방한 미국인의 기질 탓에 미국 작가들의 러브레터는 보다 파격적이고 다양한 사랑의 체험을 담고 있다. 월트 휘트먼, 헨리 제임스, 잭 런던, 헨리 밀러 등의 편지가 소개되어 있다. 〈각권 8천5백원〉

종교의 철학적 의미

마이클 피터슨 외 지음 · 하종호 옮김

종교 철학의 주요 주제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종교적 경험, 신앙과 이성, 신 존재증명, 악의 문제, 개혁주의적 인식론, 기적, 종교 언어의 문제 등을 다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입문서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과정 신론, 종교적 다원주의, 종교와 과학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플란팅가, 얼스턴, 마틴, 머피, 뎀스키, 애덤스, 스윈번을 비롯한 현대 종교 철학자들이 최근에 발표한 문헌들도 소개하고 있다. 탁월한 종교 철학 입문서로 평가받는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종교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탐구하는 작업을 통해 ‘철학함’의 묘미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1만7천원〉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정현주 지음

최근 음악치료가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음악치료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학문적, 임상적 자료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음악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음악의 심리치료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단계적으로 음악치료의 전문적인 측면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임상적 적용과 대상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접근 기술들을 제시함으로써 음악치료의 학문적 · 전문적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자 한다. 〈1만7천원〉

종교로 세계 읽기

이찬수 지음

다양한 종교들의 핵심을 명료하게 풀어 쓴 세계 종교 입문서이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유일신 종교들, 힌두교와 유 · 불 · 선의 아시아 종교들, 한국의 종교인 무교,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등을 종교별로 다루었다. 기존의 세계 종교 소개서들의 경우, 한국의 종교 문화적 맥락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한국 종교사가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감이 있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은 무엇보다 한국적 맥락을 견지하고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7천5백원〉

이화에서 배운 봉사 정신으로 나라에 헌신

입각 및 의회 진출 동문 축하회

장하진 여성부 장관(사회학 73년졸), 김선욱 법제처장(법학 75년졸),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정외 82년졸),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영문 76년졸) 등 최근 입각하거나 의회에 진출한 동문들을 위한 축하 모임이 2월18일(오후6시), 이화·삼성 교육문화관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조기숙 · 장하진 · 김선욱 · 서혜석 동문

이 자리를 마련한 윤순희 총 동창회장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한 분야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은 어렵고, 그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며 이화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으로 이들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원하자고 말했다.

"개각할 때마다 이화출신들이 대거 기용되어 축하하느라 바쁘다"고 말문을 연 신인령 총장은 "정치 및 관계에 이화 출신이 꾸준히, 그리고 대거 진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조국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하를 받은 4명의 동문들은 "세월이 갈수록 이화에서 배운 사랑과 헌신, 봉사의 정신이 소중함을 절감한다"면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투명성과 청렴함, 소신 등 여성적 관점을 실현하며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은 취임 축하를 받은 동문들과 이화인 모두에게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서러움과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살아온 우리 민족에 대한 연민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동문 동정

김혜경 동문(영어교육 75년졸)

2월3일 열린 한국출판인회의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도서출판 푸른 숲 대표로서 국내 300여 개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을 이끌게 된 김 동문은 앞으로 '책 읽는 가정' 운동을 통해 지식기반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미용 동문(법학 86년졸)

지난 1월, 노동부 42년 역사상 첫 여성 총무과장이 됐다. 행시 32회 출신인 하 동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경인지방노동청 관리과장,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등을 거치며 노동행정의 전문가로 능력을 발휘해 왔다.

김경희 동문(법학 93년졸)

2월11일, 농림부 사상 최초의 여성 총무과장으로 발탁됐다. 정부 부처의 총무과장은 예결산과 인사, 직원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핵심요직이다. 행시 38회 출신인 김 동문은 농업인 복지와 농정기획업무를 맡아오면서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왔다.

"제자 사랑이 모교 사랑이죠"

음악대학 교수 장학기금 7억원 조성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계명선, 윤명자, 최유리, 김희성, 신지희, 정복주, 박은혜, 문재숙, 윤금희, 이규도, 최승현, 남덕우, 채문경 교수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취지로 음악대학(학장 이규도 교수)의 본교 출신 교수 14명이 각 5000만원씩의 장학금을 약정, 총 7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마련했다.

이규도 음대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대 제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많은 동료 교수들이 동참해 더욱 뜻 깊었다고 전했다.

"제자들이자 후배인 우리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통해 더 나은 형편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제자 사랑이 모교 사랑인 셈이죠. 그런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학기에 첫 수혜자가 나온 후 지금까지 5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음악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금 기탁 교수 명단>

건반악기 전공 계명선 교수, 김희성 교수, 윤금희 교수, 채문경 교수, 최승현 교수

성악전공 남덕우 교수, 신지화 교수, 윤명자 교수, 이규도 교수, 정복주 교수

작곡과 박은혜 교수, 최유리 교수

한국음악과 곽은아 교수, 문재숙 교수

신인령 총장 ECC 기금 2000만원 약정

본교 신인령 총장은 3월30일 이화캠퍼스센터(ECC) 건립기금으로 2000만원을 약정하고 이중 1000만원을 대외협력처(처장 신경림 교수)로 보내왔다. 신인령 총장은 "21세기를 향한 이화의 꿈과 희망이 담긴 이화캠퍼스센터(ECC) 신축에 많은 이화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1세기 발전기금

생활협동조합 이화21세기발전기금으로 1억원 약정, 5000만원 전달

본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이옥지 이사장이 3월7일 대외협력처(처장 신경림 교수)에 이화21세기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생협은 학내 구성원의 생활개선, 건전한 생활문화 향상, 면학분위기 조성, 대학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교수, 직원, 학생이 조합원으로 참여, 함께 운영해가는 자치기구다. 생협은 총 1억원을 약정했고, 이 중 5000만원을 납부했다.

홍기연 동문(경영 85년졸) 1억원 유증기부 약정

홍기연 동문(경영 85년졸, 메트라이프생명보험회사 재정설계사 · 사진)이 1월21일 1억원 유증기부를 약정했다. 이는 보험기부 상품인 변액종신 보험가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홍 동문이 월 14만5500원을 20년간 보험금으로 납부한 후 1억원의 수익을 본교가 지급받도록 한 것이다.

"신앙인으로서 사는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홍 동문은 학비마련에 곤란을 겪던 시절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훗날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늘 가져왔다고. 그러던 중 기부보험 상품을 접하면서 모교 사랑을 실천에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가족 사랑만큼 모교 사랑도 의미있는 일이라며 홍 동문은 이런 종신보험을 통한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 동문의 유증 기부는 기부보험을 통한 첫 기부사례로, 보험 수혜자를 학교는 물론 비영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기부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홍 동문은 이와 별도로 이화캠퍼스센터기금 200만원을 약정했다.

장학금 기탁 소식

찾아가지 않은 종이컵 보증금, 장학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이화-포스코관 1층의 까페테리아 '이화사랑'(대표: 류년위)은 2월14일 대외협력처를 방문해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앞으로 '파라장학금'으로 지급될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찾아가지 않은 종이컵 환경보증금(50원)을 2004년 한해동안 모은 금액 661만1000원에다 '이화사랑'의 별도 기부금을 합한 것. 류년위 대표는 "학생들이 고객인 만큼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미환급 종이컵 환경보증금을 모아 이화인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우회 장학금 전달 소식

본교에 재직 중인 여직원들의 친목 모임인 이우회(회장 이양준)가 지난해 12월21일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동창회 대회의실에서 1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지고, 장학금 마련을 위한 미니바자와 십시일반 장학금 모금 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금한 300여 만원의 장학금은 매년 이우회에서 지급해 오던 장학금과 합하여 2005학년도 1학기에 지급됐다.

그 외 장학금 기탁

김애마기념사업회 6515만9604원, 한영자 1200만원, 대학원동창회 1000만원, (주)이화유니폼(대표 서기분) 1000만원, 나용미(정치외교 74년졸) 600만원, 김수지(간호과학과 교수) 562만1800원, 유영희(학부형) 500만원, ICSF(International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 $5,000, 신완(범양금속주식회사 대표) 461만7000원, EMTOP총동문회 435만원, 대학교회 300만원, 김경화(수학전공 교수) 300만원, 김정희(패션디자인연구소 실장) 300만원, 유중근(영어영문 67년졸) 300만원, 일곡문화재단(이사장 최재선) 300만원, (주)소프톤엔터테인먼트(대표 유태호) 250만원, 이명경(무용 77년졸) 200만원, 이해순(해외동문) $1,500, 심경섭(심&강치과 원장) 150만원, 차재능(벧엘치과 원장) 150만원, 미주올렌도지회동창회 $1,100, 김동례(이영회 68기) 100만원, 황신옥(이영회 54기) 100만원, 안백희(이영회 55기) 50만원, 미주올렌도지회동창회 $1,100, 이화인닷넷 20만1829원,익명 2000만원, 익명 1000만원

발전기금 기탁 현황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

의과대학(학장 한운섭 교수)의 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이 의과대학 교수 및 동문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운섭 학장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과대학기숙사 신축, 교수 연구 활동 등 의과대학의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앞으로 학부형, 일반인, 기업, 사회단체 등 범위를 넓힌 후원회를 만들어 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발전기금 기금

박영요 1000만원, 이홍수 1000만원, 정우식 1000만원, 하은희 1000만원, 한운섭 1000만원, 강병철 500만원, 김명래 500만원, 김영주 500만원, 김영철 500만원, 박시훈 500만원, 박혜숙 500만원, 이주호 500만원, 문병인 300만원, 구혜수 100만원, 김종오 100만원, 박미혜 100만원 박은애 100만원, 신규만 100만원, 유권 100만원, 이진화 100만원, 이흥동 100만원, 정락경 100만원, 정성철 100만원, 최규복 100만원, 김유경 50만원, 김혜순 50만원, 박성훈 50만원, 심기남 50만원, 어은경 50만원, 오지영 50만원, 유은선 50만원, 이귀용 50만원, 이레나 50만원, 임수미 50만원, 장중현 50만원, 정성애 50만원, 최희정 50만원, 이령아 30만원

의과대학기숙사신축기금

박영요 1000만원, 성주명 1000만원, 조종남 1000만원, 구혜수 900만원, 김종오 900만원, 박미혜 900만원, 박은애 900만원, 신규만 900만원, 유권 900만원, 이진화 900만원, 정락경 900만원, 정성철 900만원, 최규복 900만원, 김승철 500만원, 박혜숙 500만원, 심경원, 500만원, 하은희 500만원, 한운섭 500만원, 김유경 450만원, 김혜순 450만원, 박성훈 450만원, 심기남 450만원, 어은경 450만원, 오지영 450만원, 유은선 450만원, 이귀용 450만원, 이레나 450만원, 임수미 450만원, 장중현 450만원, 정성애 450만원, 최희정 450만원, 이령아 270만원

사범대학교육관 신축기금

박혜숙(사회생활 78년졸) 500만원, 유명심(과학교육 74년졸) 400만원, 김윤옥(보건교육 70년졸) 300만원, 김혜림(수학교육 77년졸) 300만원, 윤석희(사회생활 87년졸) 200만원, 이용하(수학교육과 교수) 200만원, 이종희(수학교육과 교수) 200만원, 김선미(사회생활 88년졸) 150만원, 강영숙(사회생활 78년졸) 100만원, 강영희(교육학 04년졸) 100만원, 고승덕(보건교육 78년졸) 100만원, 김경자(교육공학 67년졸) 100만원, 김순자(교육공학 67년졸) 100만원, 김여옥(교육학 57년졸) 100만원, 김은희(영어교육 86년졸) 100만원, 노봉옥(사회생활 70년졸) 100만원, 명재숙(사회생활 75년졸) 100만원, 박경희(수학교육 91년졸) 100만원, 박영숙(교육학 68년졸) 100만원, 백부현(사회생활 78년졸) 100만원, 변경화(교육공학 82년졸) 100만원, 사회생활학과 일반사회전공 81년졸업생 일동 100만원, 안연신(사회생활 89년졸) 100만원, 오정희(사회생활 78년졸) 100만원, 윤숙희(사회생활 75년졸) 100만원, 윤영혜(사회생활 80년졸) 100만원, 이명순(사회생활 75년졸) 100만원, 이승연(사회생활 89년졸) 100만원, 이우숙(교육대학원 01년졸) 100만원, 이은경(교육대학원 05년졸) 100만원, 이인애(교육공학 67년졸) 100만원, 정성혜(사회생활 78년졸) 100만원, 한금자(교육공학 67년졸) 50만원, 문혜원(외국어교육 98년졸) 10만원, 박경순(사회생활 83년졸) 10만원, 변정애(사회생활 01년졸) 10만원

그 밖의 발전기금

장완석(대성의지재활연구소 대표) 600만원, 이지혁(의학과 교수) 500만원, 배정호(의학과 교수) 400만원, 성혜숙(간호과학 78년졸) 100만원, 문봉선(수학교육 76년졸) 19,620원

이화캠퍼스센터(ECC)건립기금 기탁 소식

이영회연합회 11억원 약정

권영현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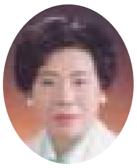
1월27일 이영회연합회 박양덕 고문과 지순영 전 회장이 이화캠퍼스센터 건립기금 11억원의 약정서를 신인령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영회(梨營會) 연합회는 1970년 본교 법정대 경영연구소가 한국여성경영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신설한 이화여성고위경영자과정 수료생들의 모임. 35년의 역사동안 회원수만도 3000명이 넘으며 88년부터는 매년 공인회계사,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본교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다.

(왼쪽부터) 박양덕 고문, 신인령 총장, 지순영 전 이영회 회장.

신인령 총장은 "이영회가 그동안 최첨단 강의동 신축기금, 대강당 보수기금, 경영대 장학기금 등 꾸준히 조성해온 크고 작은 기금들이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양덕 고문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3월10일, 새 회장으로 선출된 권영현 동문(법학 61년졸, 이영회 52기)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 만큼 걱정도 되지만 한사람의 힘으로 조그맣게 시작한 이화가 오늘날 세계 최대의 여자대학으로 성장한 것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는다"고 말했다. 모교에 올 때마다 옛 친구들과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훈훈해 진다는 권 회장은 후배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캠퍼스 환경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니만큼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CC기금 약정자 인터뷰



"여성 인력 양성에 도움되길"
정순자 동문 5000만원 약정

"생활은 근검절약하되, 꼭 써야할 곳에는 지출하는 것이 제 신조입니다." 이화여성고위경영자과정, 평생교육원 등에서 공부해 온 정순자 동문(이영회 26기, 알프스 5기)이 이화캠퍼스센터(ECC)기금으로 5000만원을 약정했다. 캠퍼스에 들어서면 패기 넘치는 이화인들의 모습에 가슴 뿌듯하다는 정 동문은 장차 손녀딸들이 다니게 될 지도 모를 이화여대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하며 할머니로서 기금을 내게 되었다고 기탁계기를 밝혔다.

"딸과 며느리를 위한 사랑"
김정자 동문 5000만원 약정

이화캠퍼스센터(ECC)기금으로 5000만원을 약정한 김정자 동문(이영회 65기, 알프스 7기)은 조형대를 졸업한 딸과 체육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며느리의 모교인 본교의 끝없는 발전을 바란다고 약정 소감을 밝혔다. 바쁜 생활 속에서 이화여성고위경영자과정을 수료한 김동문은 회사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주변에 이 과정을 추천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ECC 건립기금 약정자 명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이화캠퍼스센터기금 모금이 동문 및 교직원, 학부형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약정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신언임(국어국문 69년졸) 100만원, **이미경**(영어영문 73년졸) 300만원, **김영옥**(영어영문 70년졸) 200만원, **방영란**(영어영문 70년졸) 200만원, **강목인**(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박지화**(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서국원**(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서정훈**(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손난규**(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송봉자**(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오부근**(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이강님**(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이선희**(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이성남**(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이정희**(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이후지**(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장혜자**(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최영희**(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홍선희**(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김선숙**(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김수영**(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김순희**(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김정옥**(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김혜란**(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민기남**(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박정순**(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백선욱**(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성혜옥**(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이순복**(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이정숙**(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이종희**(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이화숙**(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정태순**(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황영희**(영어영문 70년졸) 50만원, **한춘자**(정치외교 65년졸) 100만원, **백수경**(신문방송 79년졸) 500만원, **동수정**(일반대학원 음악학 93년졸) 1000만원, **송윤혜**(피아노 82년입학) 1000만원, **서정원**(피아노 95년졸) 500만원, **신지영**(피아노 92년졸) 400만원, **조상은** (일반대학원 피아노전공 박사과정) 300만원, **조현정**(피아노 94년졸) 300만원, **김선규**(피아노 95년졸) 200만원, **김옥련**(피아노 82년졸) 200만원, **장미화**(피아노 85년졸) 200만원, **최세영**(피아노 93년졸) 200만원, **함윤미**(피아노 92년졸) 200만원, **한난이**(피아노 84년졸) 150만원, **김강희**(피아노 81년졸) 100만원, **김은하**(피아노 86년졸) 100만원, **왕현옥**(피아노 83년졸) 100만원, **이명혜**(피아노 74년졸) 100만원, **이수희**(피아노 94년졸) 100만원, **이향아**(피아노 84년졸) 100만원, **이화병**(성악 81년졸) 100만원, **임성애**(종교음악 92년졸) 300만원, **한은미**(종교음악 87년졸) 300만원, **황양숙**(종교음악 81년졸) 200만원, **방진이**(종교음악 93년졸) 100만원, **나순희**(작곡 70년졸) 200만원, **김순자**(작곡 69년졸) 100만원, **권하경**(일반대학원 음악학 01년졸) 300만원, **신주희**(국악 97년졸) 300만원, **권새별**(한국음악 01년졸) 100만원, **황세림**(한국음악 01년졸) 100만원, **김형숙**(서양화 70년졸) 500만원, **이명경**(무용 77년졸) 1000만원, **김정수**(무용 70년졸) 300만원, **조수형**(무용 70년졸) 300만원, **진채은**(무용 70년졸) 100만원, **오세숙**(과학교육 67년졸) 100만원, **법학과 5기**(58년졸) 100만원, **김명신**(의학 94년졸) 1000만원, **김화숙**(의학 71년졸) 500만원, **의학과 24회동기**(75년졸) 500만원, **의학과 33기**(84년졸) 500만원, **지현숙**(의학 70년졸) 500만원, **전선희**(의학 76년졸) 200만원, **김연진**(의학 96년졸) 300만원, **한명자**(의학 76년졸) 300만원, **김은성**(의학 86년졸) 100만원, **이명숙**(의학 86년졸) 100만원, **현재란**(의학 81년졸) 100만원, **김난희**(의학 71년졸) 50만원, **노재경**(의학 81년졸) 50만원, **신해림**(의학 81년졸) 50만원, **강경희**(의학 72년졸) 30만원, **계희순**(의학 70년졸) 30만원, **고광애**(의학 70년졸) 30만원, **김경애**(의학 70년졸) 30만원, **김상숙**(의학 70년졸) 30만원, **김선희**(의학 70년졸) 30만원, **김수연**(의학 72년졸) 30만원, **김순병**(의학 70년졸) 30만원, **김정자**(의학 70년졸) 30만원, **김종희**(의학 70년졸) 30만원, **김진주**(의학 72년졸) 30만원, **민혜숙**(의학 70년졸) 30만원, **박미숙**(의학 81년졸) 30만원, **박숙자**(의학 72년졸) 30만원, **손경희**(의학 72년졸) 30만원, **손영애**(의학 70년졸) 30만원, **신현자**(의학 70년졸) 30만원, **오영옥**(의학 72년졸) 30만원, **우경숙**(의학 72년졸) 30만원, **유지정**(의학 72년졸) 30만원, **이명숙**(의학 70년졸) 30만원, **이애경**(의학 72년졸) 30만원, **이연복**(의학 70년졸) 30만원, **이영주**(의학 72년졸) 30만원, **이영혜**(의학 72년졸) 30만원, **이정화**(의학 72년졸) 30만원, **이혜경**(의학 72년졸) 30만원, **임효희**(의학 70년졸) 30만원, **장혜순**(의학 70년졸) 30만원, **정영진**(의학 72년졸) 30만원, **조정실**(의학 72년졸) 30만원, **주문희**(의학 70년졸) 30만원, **최재화**(의학 72년졸) 30만원, **최태란**(의학 70년졸) 30만원, **허창규**(의학 72년졸) 30만원, **홍성운**(의학 72년졸) 30만원, **유정옥**(의학 81년졸) 20만원, **김미경**(의학 81년졸) 10만원, **김미혜**(의학 81년졸) 10만원, **김영화**(의학 81년졸) 10만원, **김현화**(의학 81년졸) 10만원, **박순복**(의학 81년졸) 10만원, **박은희**(의학 81년졸) 10만원, **배은경**(의학 81년졸) 10만원, **양정희**(의학 81년졸) 10만원, **원규숙**(의학 81년졸) 10만원, **이경숙**(의학 81년졸) 10만원, **이신숙**(의학 81년졸) 10만원, **이영식**(의학 82년졸) 10만원, **이정희**(의학 81년졸) 10만원, **정재선**(의학 81년졸) 10만원, **홍경희**(의학 81년졸) 10만원, **이대약대1,2,3,4회졸업생** 300만원, **정애영**(약학 63년졸) 300만원, **김용임**(이영회 58기) 300만원

김일섭(경영학전공) 1000만원, **함영림**(건반악기전공, 피아노 80년졸) 1000만원, **계명선**(건반악기전공, 피아노 85년졸) 500만원, **성태제**(교육학과, 교무처장) 500만원, **도현심**(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 81년졸) 300만원, **박은혜**(작곡과, 피아노 05년졸) 300만원, **서수정**(건반악기전공, 기악 63년졸) 300만원, **석설희**(총무처 인사과, 비서 86년졸) 300만, **안미자**(건반악기전공, 기악 66년졸) 300만원, **윤금희**(건반악기전공, 기악 66년졸) 300만원, **윤미재**(건반악기전공, 기악 65년졸) 300만원, **정윤보**(건반악기전공) 300만원, **채문경**(건반악기전공, 기악 70년졸) 300만원, **김경화**(수학전공) 210만원, **최선열**(언론홍보영상학부, 영어영문 70년졸) 200만원, **이경숙**(기독교학전공, 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이미경**(교육대학원 교학부, 식품영양 85년졸) 100만원, **최승현**(건반악기전공, 기악 63년졸) 100만원

장대환(관현악과 학부형) 3000만원, **이서례**(관현악과 학부형) 2000만원, **유소영**(건반악기전공 강사) 300만원, **이주희**(건반악기전공 강사) 150만원, **김계화**(건반악기전공 강사) 100만원, **이신자**(대학교회 교인) 100만원, **익명** 10만원

제5대 목동병원장에 서현숙 교수 취임

"급변하는 의료환경속에서 새 경쟁력 확보에 주력"

서현숙 원장

목동병원장 서현숙 교수(방사선종양학)의 취임식(사진)이 2월25일, 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973년에 본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서현숙 원장은 1999년부터 본교에 재직해 왔으며, 목동병원 초대 방사선종양학과장과 유방센터 소장,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현재 대한암학회 이사, 대한두경부종양학회 이사, 암정복추진기획단 분과위장,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 원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비해 병원내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인 자세와 한마음으로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한 후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운영개선과 경쟁력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며 새 출발의 의지를 밝혔다.

신인령 총장은 "큰 자리에는 개인적 희생이 요구되지만 보람과 존경도 뒤따른다"며 "어려운 의료환경이지만 윤견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연규월 동대문병원장 등 병원 구성원들과 합심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함께 이임식을 가진 박영요 전 원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박 전 원장은 지난 3년을 회고하면서 "이제 무거운 짐을 벗고 교육과 연구, 진료에 다시 매진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2월1일자 목동병원 중앙보직인사에서는 신임 의무부장에 소화기내과의 유권 교수, 교육연구부장에 마취통증의학과 김치효 교수가 선임됐다.

이화의료선교봉사단 베트남에서 '사랑의 인술'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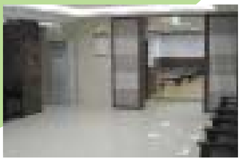
8일간 총 1361명 진료, 보고회 및 활동 사진전도 개최

학생처 사회봉사센터와 의과대학이 주관하는 제16차 이화의료선교봉사단(단장 응급의학교실 정구영교수) 23명이 이화의료원의 협조로 1월22일부터 8일간 베트남의 쏙손(Socson)과 동안(Dong ahn)지역에서 진료봉사(사진)를 펼치고 돌아왔다. 이들은 일주일여의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치과진료환자를 포함, 총 1361명을 진료했으며, 선교 봉사활동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올해로 16년째 해외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화의료선교봉사단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해외 오지를 돌며 무료 진료를 통해 이화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봉사단은 3월15일, 활동 보고회를 가졌으며, 대원들의 수기를 모은 책도 발간할 예정이다. 3월15~26일, 목동병원과 동대문병원 로비에서 열린 사진전도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동대문 소식

첨단 시설의 장례식장 새로 개장



동대문병원(원장 연규월)의 장례식장이 기존 장비를 교체하고 고객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1월18일 새로 문을 열었다(사진). 새로 단장된 장례식장은 총 5개 빈소로 중앙진료부 1~3층까지 사용되며 최첨단 설비와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식장 입구에 상주와 빈소를 안내하는 커다란 벽걸이형 TV를 설치,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바닥과 벽면의 고급대리석 장식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했으며 빈소마다 유족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 최신 시설을 완비했다.

목동 소식

교수 워크샵 개최

이화학술상에 호흡기내과 이진화 교수

'변화를 주도하는 목동병원'이라는 주제로 2월19~20일 '교수 워크샵'이 열렸다. 80여명의 교수진이 참가한 이번 워크샵은 '의료 질 관리와 고객 만족전략'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목동병원 중단기 발전전략에 대한 조별 분임토의도 이어졌다. 함께 진행된 제3회 이화학술상 시상식에서는 호흡기내과 이진화 교수가 국내외에 우수한 논문 및 포스터를 발표해 의료원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동정

최송희 간호사

인공신장실 최송희 수간호사 노바티스 영나이팅게일상 수상

2월23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정기총회에서 간호의 전문화 및 임상간호발전에 대한 공헌과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제1회 노바티스 영나이팅게일상을 수상했다.

정선영 간호사

감염관리실 정선영 감염관리간호사 학술대회 최우수상 수상

제10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동계 학술대회(1월28일)의 감염관리 성공 사례 경진대회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에 다른 감염관리 활동'이라는 연구활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과대학 국과지원금 7억원 받아

교육목표 재개정 등 전문대학원 체제 정비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국고지원금 7억원을 받게 됐다. 이 지원금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개발과 학생실험 실습용 기초실습기자재 및 임상실습 기자재 구입에 쓰이게 된다. 의과대학은 최근 200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온 교육목표 재개정 작업도 마쳤다. 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 동창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 범주별 핵심단어를 추출한 뒤, 수차례의 자문위원회의 끝에 '사랑, 전문성, 봉사'를 표방하는 이화의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를 확정한 것. 의과대학은 앞으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의학전문대학원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